

2015년 5월 12일 (화) 김경원 의 일기 (자음고 1영2)

자음고등학교 1학년 3반 김경원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이었다. 그저 눈을 뜨고 강아진 것만 같은데 벌써 하루의 끝
 자각에 아 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지루하다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
 상의 행복에 감사해야 하는 것 같다 심지어 아침에 눈을 뜨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원초적인
 것까지 말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도 끊임없이 무언가의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는 한 것 같은데, 하루가 끝날 때쯤에는 정말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
 다. 어른들이 말하기를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아라똥의 시작'이라고 한다. 고등학생이 되거
 2달 남짓한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친다는게 참, 속상하다. 이것을 3년 가
 가이 해야 한다는 것에도 한월이 난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는 다시 펜을 들고 교과
 서를 펴겠지만, 가끔은 이런 일상이 버겁기만 하다. 내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님에도,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부끄럽고 말이다. 막연히 가고 싶은 대학교에 입
 적한 나를 상상한다. 대학생이 되면 살도 바뀌고, 피부도 더 좋아져 있을 나를 그리운 한다.
 행복한 이노를 짓고 있다. 그에 대조했을 때 지금 나의 모습은 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대학에 가자'라는 생각만을 한다. 사실 우리가 제일 아름다운 시기
 는 지금인 것 같다. 어른이 되기 전, 미숙하더라도 풋풋한 그 느낌은 ^{청소년이 아닌 그}누구도 자아낼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어렸을 적에 예상하던 내 청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사회 구조가 원망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겪는 시련인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이루고
 보든, 도달하고 싶은 이상향에 언제쯤이면 가까워지게 되니까. 가끔 흐려지기도, 또 선명해지기도
 하지만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질 때는 모든걸 다 놓아버리고만 본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만 하다. 친구들이 경쟁상대가 되고, 서로의
 성취에 민감해져온 것이 싫다. 언젠가는 끝나는 이런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언젠지
 몇일 밤낮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막연하고 아득한 하루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내게 과찬했다고 말 해주었다면 좋겠는 날이다. 다 잘 될 거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